

현대 평면의에 나타난 형태미에 관한 연구

권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A Study on the Analysis of Aesthetic Shape Shown on the Modern Flat Patterned Clothing

Jin Kwen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6. 6. 20 투고)

ABSTRACT

The study on plane composition in clothing was focused mainly on woven wear earlier but its application has been reaching the knit wear. This study is confined to the utilization with geometrical linear pattern in the modern apparel.

The work here intends to grasp the plane structure found in both woven wear and knit wear and, in particular, to understand the aesthetics of fashion.

The modern flat patterned clothing has been affected by the oriental style or postmodernism in view of social and cultural aspect while its fabric material and expression method shows the diversity in terms of industrial and technical aspect. It can be characterized as several outstanding patterns: the geometrical pattern in structure, the linear pattern with seam line and 2-dimensional plane pattern without seam line, and the flexible silhouette integrated into one single shape with human body unlike the traditional apparel

The aesthetics of fashion in modern flat patterned clothing can be divided into such category as the organically spatial change, the re-creation of tradition and the non-format framework.

The organically spatial change shows the geometrical formation in clothes due to change in dimension, where the organically changing uniformity and generosity appears as the dimension progresses. The timeless without any difference of up and down, left and right, and inside and outside and the discontinuity due to limitless spatial change are also imbedded.

The re-creation of tradition tells the reshaped spirits of old tradition by integrating and modifying the hereditary features in the old customized clothing into modern clothing. The modern flat patterned clothing implies the contemporaneousness or the frame through which the old and modern cultures may be shared and indicates the re-creation of the past and uniformity.

The non-format framework contains the uncertainty in meaning and it doesn't have any certain standards. As both the apparel and the human body with this style aim at the open space, the numerous contingencies are realized.

Key words: 평면의(flat patterned clothing), 위상기하학(topology), 전통성(tradition), 불확정성(non-format)

I. 서론

산업이나 기술의 발달과 디자인의 욕구에 의하여 의복 표현방법들이 다양화되고 있다. 동양풍에 대한 인식의 확대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은 입체구성 중심의 복식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고, 홀가먼트(Wholegarment)나 환편니트웨어 발달에 따라 의복 구성법의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의 평면구성으로 제작된 의복들은 전통적인 평면 구성법과는 다른 현대적인 디자인이 결합되어 있고 소재 발달과 피복 구조의 다양화로 과거 복식과는 다른 디자인적 특성이 나타난다. 특히 직물을 이용한 평면의는 피복에 물리적인 조건을 변화하여 2차원에 놓았을 때는 직선 구조의 면을 형성하지만 인체에 착용할 경우 기하학적 구조의 실루엣을 형성하게 된다. 니트웨어(Knit Wear)에 평면 구조를 적용하면 재단이나 성형과정이 포함된 의복에 비하여 자연스러운 인체의 실루엣을 형성하는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평면 구성은 우븐웨어(Woven Wear)의 활용을 넘어 니트웨어까지 확대되어 의복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평면 구성은 직물로 제작하는 우븐웨어 중심이고 동양풍 의복에 대한 조형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의복의 전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러한 점에서 의복의 모든 범위에서 나타나는 평면구성 의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현대 평면의의 범위를 현대 의복 가운데 기하학적인 직선 구조의 패턴이 적용된 것으로 한정하고 현대 평면의가 갖는 구조적인 특성 및 표현 유형을 살펴보고 우븐웨어와 니트웨어 모두에서 평면 구성의 형태미에 관한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작품 분석을 위하여 20세기 이후 컬렉션에 발표된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과 실제 판매·생산되었던 평면의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론적 배경 분석은 국내·외의 단행본 및 간행물, 학위논문, 국내외 의 학회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현대 평면의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의 단행본, 인터넷사이트, 스톨사와 시마세이키사의 간행물, Vogue, Manifattura Italiana Maglieria,

Collection, Collezioni, Fashion Focus, L'Officie 등에서 객관적인 사진 자료를 추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현대 평면의의 디자인 활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복 구성법과 디자인의 발상을 위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의복의 새로운 개발을 위한 구성법을 체계화에 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II 현대 평면의 유추

복식은 구성법에 따라 평면구성과 입체구성으로 분류¹⁾되며, 외부 환경 요인의 유입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화된다. 형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요인 등이²⁾ 있고 다른 문화의 전파로 계속 수정³⁾되며 복식 문화에 반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대 평면의는 문화·사회적 요인과 산업·기술적 요인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평면의복의 부류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 낭만주의의 한 경향으로 문학과 예술에 대한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상의 제재(題材)로 삼은 오리엔탈리즘⁴⁾, 1980년대 말엽부터 미국학계나 문화계에 일어나기 시작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운동⁵⁾, 민족적·지역적·특수주의적 특성이 강화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등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⁶⁾, 1990년대 등장한 문화의 상호 결합을 의미하는 세계화 등의 결과는 서양복식에 동양풍을 차용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패션선도국으로서 자리를 확보하기 시작했으며⁷⁾ 다케다 겐조(Takada Kenzo),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등의 일본 디자이너들은 의복에 대한 서구인의 고정 관념을 깨고 하이패션계에 일본풍의 모드를 유행시켰으며 패션을 통한 동서양의 혼합적 요소⁸⁾로 일본 복식문화의 전파를 이루었다. 1990년대 이후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적 디자인을 모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신우, 이영희, 진태옥 등이 파리컬렉

선에 참가하여 한국적 디자인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조화⁹⁾시키기도 하였다.

현대 동양권 복식은 기능적인 서양복식의 다양한 변화와 절충하여 상징적인 전통을 지키려는 경향¹⁰⁾이 나타났다. 동양복식의 영향은 서양복식의 구성법을 유지하면서 동양적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과 동양복식의 구성법에 서양적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현대 평면의는 동양적 구성법을 유지하면서 서양복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평면의는 권두형의 의복에서 시작하여 고대로마시대¹¹⁾부터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으며, 15세기 이후 완성된 서양에서 입어오던 서양 복식(Western dress)에 대비되는 비서양 복식(non-Western dress)으로 과거 복식의 전통을 고수¹²⁾하려는 비구조적이고 가변적인 형태가 가능한 평면 구성법과 현대 이미지를 표현하는 복식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평면의는 비구조적이고 가변적인 형태를 통하여 생략, 절제되어 은유적으로 표현¹³⁾되는 동양모드에서 새롭게 형성된 의복의 구조적 특성이라 할 것이다.

현대 평면의 또 다른 발달 요인으로는 산업적·기술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의복 소재의 발달은 의복 표현 자유의 폭을 넓혔으며 과거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한 평면의의 형태적 제약을 넘어 현대적이며 실험적인 디자인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입체구성으로 형성된 의복은 구성과정에서 피복을 인체의 형태대로 의복의 본을 맞추어 구분하여 제작하지만 현대 평면의는 입체구성 과정과 다른 구성법으로 인체를 표현하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구성법은 발상 전환에 따라 환편니트나 홀가먼트¹⁴⁾의 재단 과정 없이 편직 자체가 의복을 완성하는 방법¹⁵⁾으로 현대 평면의복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Ⅲ 현대 평면의의 특성

1. 현대 평면의의 구조적 특성

현대 평면의의 가장 큰 특징은 평면구성으로 제

작되지만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착용하는 의복의 대부분은 곡선적인 재단과 봉제로 형태를 입체화시키는 구성법을 활용하는 반면 현대 평면의는 동양 복식의 구성에 뿌리를 둔 것으로 직선적인 재단과 봉제로 구성된 평면구성법에 의거하여 기본원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입체화를 위한 다아트나 구성선은 필요하지 않다.¹⁶⁾ 과거부터 전래된 동양복식은 기하학적 패턴 형태로 솔기가 직선이었기 때문에, 신체에 밀착되지 않고, 신체의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다¹⁷⁾고 할 수 있으나 현대 평면의는 동양복식의 평면구성법을 활용하면서도 인체를 드러내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 평면의는 전통적인 동양복식의 구성법 <그림 1>으로 제작되지만 인체를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인체와 복식 형태가 서로 혼합되는 독특한 표현양식¹⁸⁾을 창조하게 되었다<그림 2>,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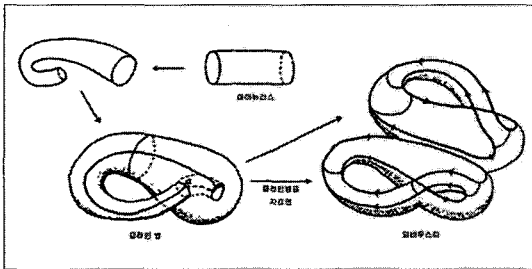
현대 평면의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 한복 바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차원이 유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한복은 사각형의 옷감을 비틀어 마주 붙이는 위상기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사각형을 한 번 비틀어 마주 붙이는 뫼비우스띠(Möbius strip)와 비튼 것을 다시 비트는 클라인병(Kleins Bottle)¹⁹⁾과 같은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현대의 평면의는 입체



<그림 1> 전통 평면의(청도포)
우리생활 100년 옷, 2001, p. 29.



〈그림 2〉 현대 평면의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1997, p. 42, Yvonne Karlsson



〈그림 3〉 위상기학의 변화 토폴로지입문, 김용운, 김용국, 1988, p. 178.



〈그림 4〉 Pleats Please 2006 S/S, 프리젠테이션 신라호텔 Issey Miyake

구성법과 달리 패턴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패턴으로 의복을 완성²⁰⁾하면서 튜블러 형태의 〈그림 3〉을 완성하기도 한다. 위상기하학적 구조가 표현되는 현대 평면의 의복 입체에 착용되기 전에는 2차원의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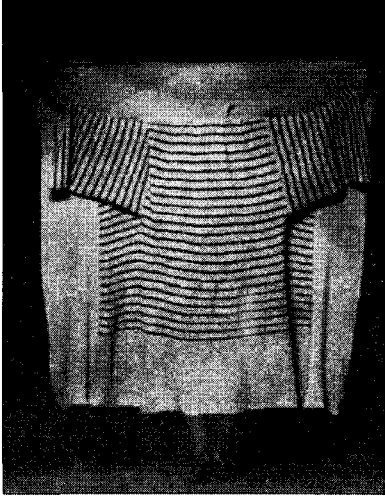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된 의복 구조선이 없으나 인체에 착용되면 인체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입체구성이나 전통 동양복식은 부분을 분리하는 의복 형태를 취하였으나 현대 평면의 의복 또 다른 표현 방법은 〈그림 4〉처럼 구조적으로 일체화하며 의복 표현의 방법을 기술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림 4〉는 일체화된 평면에 플리츠라는 현대 물리적 기술을 결합하여 의복 착용시 인체의 적합성을 높이고 있다.

2. 현대 평면의 의복 표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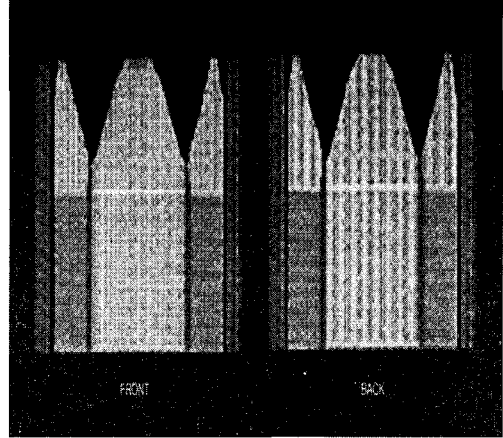
현대 의복은 피복 구조에 따라서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직물을 활용한 우븐웨어와 경사나 위사 한 방향의 실들을 루프(loop)로 연결한 니트웨어로 구분한다. 현대 평면의 의복은 우븐웨어와 니트웨어 모두에 나타나지만 인체에 착용 후 전혀 다른 실루엣이 나타난다.

현대 평면의 의복 패턴은 우븐웨어와 니트웨어 모두 직선 재단을 활용한거나 기하학적 직선의 일체형 의복을 형성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전통적인 동양 평면의 구조를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복의 형태이다. 〈그림 5〉는 동양 전통 직선 재단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정방형 사각형구조로 구성하였다. 〈그림 6〉은 〈그림 5〉의 소매와 바디의 직각 구조선을 사선으로 옮겨 인체의 곡선을 보다 유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븐웨어의 또 다른 의복 형성 방법은 〈그림 7〉로 소매와 바디의 구조선을 형성하지 않는 일체형의 의복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은 전면과 배면 모두 한 장의 패턴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림 6〉의 연결부분 대신 합성섬유에 열고정한 플리츠(Pleats)를 이용하여 구조선을 구분하고 착용시 인체의 실루엣을 살려 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현대 평면의 의복 표현 방법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된 대표적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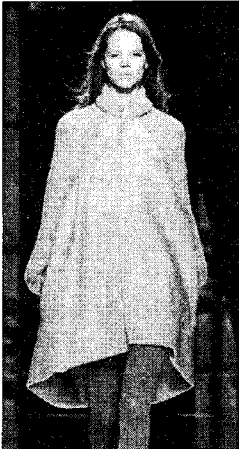
니트웨어에 나타난 현대 평면의 의복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무봉제 니트웨어인 홀가먼트(wholegarment), 환편니트 기계로 제작되는 의복, 수공예니트웨어²¹⁾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홀가



〈그림 5〉 한 개의 조각으로 된 망토,
1976. S/S Issey Miy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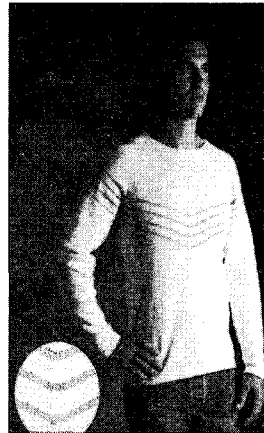
〈그림 8〉 홀가먼트의 컴퓨터 패턴, 2005,
SHIMA SEI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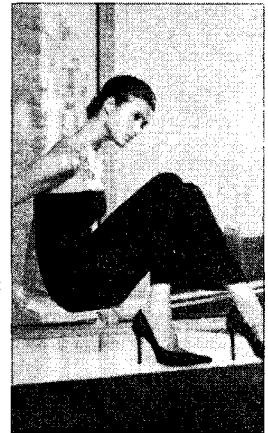
〈그림 6〉 현대 평면의
2006. F/W, Paris, Stella
Mccatney



〈그림 7〉 Pleats Please,
2005 S/S, Issey Miyake



〈그림 9〉 니트 평면의
(Pullover) 2004,
STO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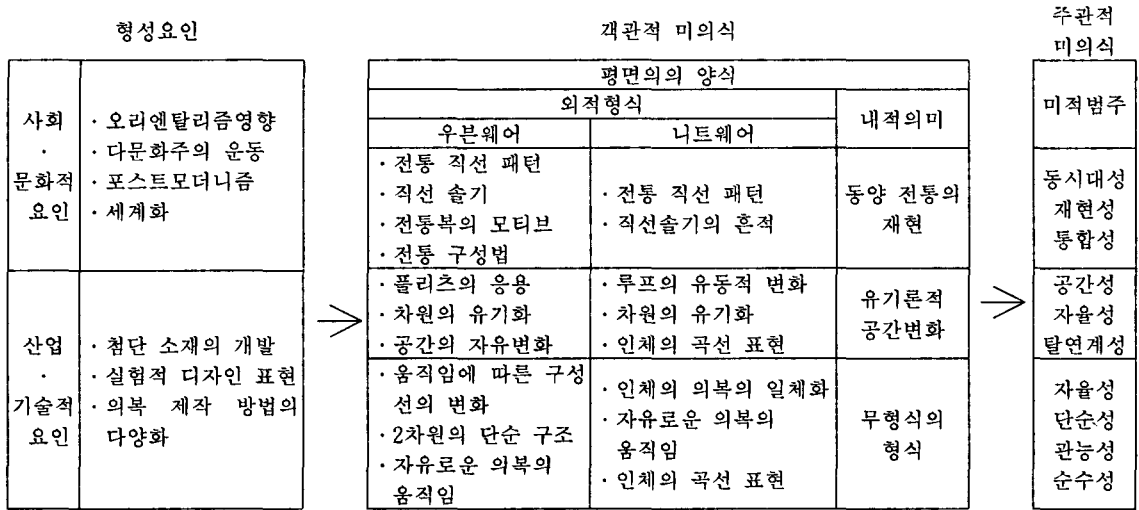


〈그림 10〉 니트 평면의
(Fatal Dress), 2006,
Wolford london

먼트는 튜블러 형태의 의복으로 봉제선이 없이 니팅과정에서 완전한 의복형태를 만들어지는 것으로 패턴이 분리되지 않고 튜블러 형태로 제작된 것이다. 홀가먼트는 〈그림 8〉의 패턴을 컴퓨터에서 〈그림 6〉의 패턴과 유사한 구조로 프로그램하면 〈그림 9〉와 같은 평면의가 완성된다. 홀가먼트 평면의는 우븐웨어처럼 평면에 놓았을 때는 〈그림 7〉과 같이 2차원적인 면들을 형성하지만 인체에 착용할 경우

는 입체 구성의처럼 인체의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계니트로 제작한 평면의는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생성된 새로운 형태로 〈그림 9〉와 같이 루프의 위상 변화로 생성된다. 환편니트에서도 홀가먼트의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니트기계의 바늘침을 환편으로 늘여놓아 원통형으로 제작하면 〈그림 10〉과 같이 인체에 피트되면서 신축성 있는 의복이 표현된다. 니트 평면의는 우븐 평면의처럼 평면에 놓았을 때는 직선

〈표 1〉 현대 평면의의 개관



의 구조선으로 연결되거나 원통형의 H라인으로 2차원적인 면을 형성하지만 인체에 착용되었을 경우 인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실릴 수 있다.

IV 현대 평면의의 형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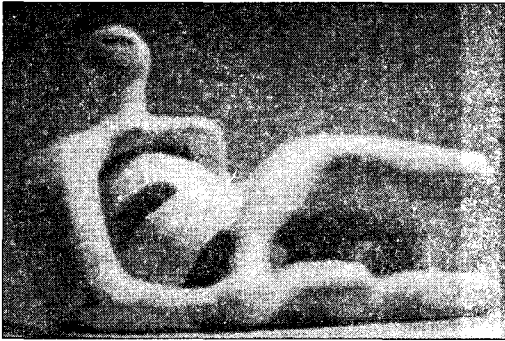
1. 유기론적 공간 변화

평면의의 제도나 마름질, 봉제에 있어서 각각의 평면도형으로 존재²²⁾ 하지만 공간적인 형태구성과 시간적인 봉제과정이 조합되어 인체에 착용하면 입체적인 조형의 〈그림 11〉과 같은 위상기하학의 유기적 차원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평면의의 의복과 인체에 있어서 부분과 전체의 문제로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일체감을 나타내며²³⁾ 인체 각각의 부분들을 분리된 의미로 인식하지 않고 몸을 연장시킨 총체적인 일체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0〉은 환편니트로 제작한 팬티가먼트(Panty Garment)로 인체 구조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였으며 의복 제작 역시 하나의 면이 〈그림 3〉과 같이 위상기하학적으로 변화하는 구조적 특징을 표현하고 있어 마치 〈그림 11〉과 같은 유기적인

조형을 연상시키게 한다. 〈그림 13〉은 〈그림 8〉의 패턴 구성법을 활용한 홀가먼트니트웨어(Wholesale Knitwear)로 직선의 기하학적 패턴이 루프로 연결되면서 인체와 일체화된 의복으로 형태가 변화한다. 홀가먼트는 좋은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 의복의 착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²⁴⁾를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상 변화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림 14〉는 평면 패턴으로 크기가 다른 사각의 면들로 구성된 의복으로 〈그림 1〉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인체의 착장시에는 전혀 다른 실루엣을 형성하게 된다. 직물에 기계적으로 고정된 플리츠를 가하여 인체와 의복이 결합될 때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플리츠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기하학적 입체 구조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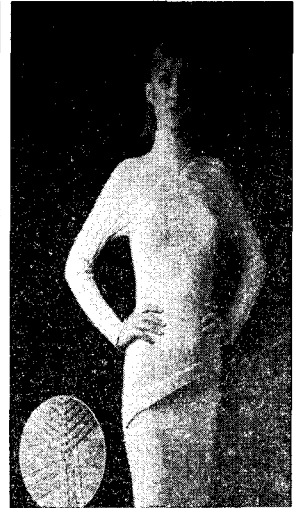
현대 평면의의 전통적인 평면의처럼 피비우스피의 삼차원적인 원리에 의해 재단되므로 결국 입체기하학을 표현하며 하나는 둘이 되고 둘은 셋이 되고 셋은 만물이 된다²⁵⁾는 통일성, 총체성을 표현하며 〈그림 11〉, 〈그림 13〉,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상하, 좌우, 내외의 구별이 없는 비시원성²⁶⁾이 내제되어 있다. 직물에 플리츠를 가한 우븐웨어와 평면 니트웨어인 홀가먼트와 〈그림 12〉와 같은 환편 니트웨어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위상의 예



〈그림 11〉 누워있는 모습, 1964, 무어



〈그림 12〉 니트 평면의 (Panty Garment), 1997, Philippe Starck



〈그림 13〉 니트 평면의 (Wholegarment Knitwear), 2003, STOLL



〈그림 14〉 우븐 평면의, Issey Miyake Making thing Origami Pleats



〈그림 15〉 기모노, 1976, 浮世繪展, 豊國 雪見八系



〈그림 16〉 우븐 평면의 2005, milano. KENZO

측 가능성이 무한한 공간의 탈연계성²⁷⁾이 내재되어 있고, 차원에 따라 변화하는 더욱 발전된 위상기하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동양 전통의 재현

전통의 재현은 과거 요소를 활용하여 더욱 새롭게 응용·절충·복합시키는 표현 특성으로서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여²⁸⁾ 과거 복식이 현



〈그림 17〉 전통평면의(대란치마)
우리생활 100년 옷, 2001, p.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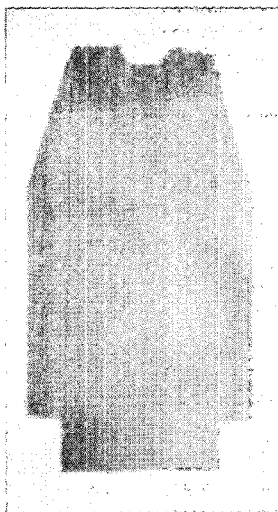
〈그림 18〉 현대 평면의,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p.
27, 1997, Lana Sultze



〈그림 19〉 우븐평면의,
Pleats Please, 1996
Issey Miyake



〈그림 20〉 니트평면의,
세계유명디자이너,2002,
VERSACE



〈그림 22〉 우븐평면의,
Pleats Please, 1993
F/W, Issey Miyake



〈그림 21〉 우븐평면의,
2006 F/W, New York
Urban Vagabond

대 복식으로 재등장한 복식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²⁹⁾ 역사를 통해 계승한 고유한 전통을 새로운 창조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할 때, 고유한 전통을 유지 계승하려는 정신이 표출³⁰⁾된다.

현대 평면의는 권두의, 로마시대의 복식, 동양의 전통 복식 등의 구성법을 현대적으로 창조해낸 의복으로 전통이 살아 있고 과거 복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동양 전통의 재현은 니트 평면의 보다는

우븐 평면의에 잘 나타나며 외형적 실루엣이나 표현방법상의 전통 재현이 구조적 구성법에 의하여 잘 표현되고 있다. <그림 2>는 서양복식의 권두의나 직선재단의 외의 또는 <그림 1>과 같은 동양복식의 평면구성법을 차용하여 현대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과거 복식 형태를 유추해 낼 수 있다. <그림 16>의 상의는 <그림 15>의 일본 기모노를 모티브로 평면구성법에 구조와 내부의 트리밍을 동일한 방법으로 차용하고 있다. <그림 18>은 동양의 전통복식들 가운데 하의인 <그림 17>의 구성법을 적용한 것으로 하나로 연결된 직사각형의 패브릭에 주름을 가하여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의복으로써 동양 전통을 재현하여 새로운 착장법을 활용한 의상이다.

동양 전통이 재현된 현대 평면의에서는 과거 복식 문화를 현대인들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과거의 복식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동시대성이 나타나며,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표현하는 재현성, 차원이 다른 시간을 공유하여 의복을 인식 시킬 수 있는 통합성이 표현된다.

3. 무형식의 형식

복식에 적용되는 무형식의 형식은 의미의 불확정성으로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체, 피복, 외부 사이를 열린 공간으로 전향시키는 구성을 취한다. 이는 무한히 개방된 공간구성에 의한 유연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특별한 형태나 형식을 미리 고정하지 않고 착용자에 의하여 자유로운 형태미를 완성³¹⁾시키며 착용자의 미의식을 반영한다. <그림 10>은 피트되어 인체와 일체감을 형성하는 원통형의 의복으로 착용자의 인체미를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그림 14>, <그림 19>, <그림 22>는 착장 방법에 따라 인체와 플리츠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인체와 피복의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새롭게 의복을 해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체를 감싸는 형태로부터 탈피하여 인체를 드러내거나 구분된 공간으로 인식 할 수 있게 한다. 의복의 공간 변화에 따른 무의식의 형식은 표현의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림 7>, <그림 18>, <그림 19>, <그림 22>의 플리츠를 응용한 우븐 평면의와 <그림 10>, <그림 12>, <그림 13>, <그림 20>의 니트 평면의는 장식성을 배제하고 단순성을 강조³²⁾함으로써 의복의 유기적 변화에 의한 표현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니트 평면의는 의복과 인체가 일체화되어 피트되면서 관능성을 강조하게 되고 의복의 구조나 인체의 순수성을 표현한다.

무형식의 형식은 복식의 전형화된 형태를 넘어 기본적인 패턴이나 피복의 표현방법을 다양화³³⁾하여 최종에서는 2차원적인 의복이 3차원의 공간에서 변화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내며, 디자이너 창작의 표현양식과 착장자의 표현 형태가 결합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의 의미를 착장자까지 부여하여 미학적 표현영역을 확대시키게 되었다.

V 결론

현대의 의복은 소재와 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새롭고 인간친화적인 의복이 개발되고 있다. 입체 구성법뿐만 아니라 평면 구성법에 대한 의복이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우븐웨어에 한정되지 않고 니트웨어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 평면의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으로는 동양풍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며 산업·기술적으로는 소재와 의복표현 방법의 다양화에 의하여 형성된 평면구성의 특성과 현대적 디자인 감각이 결합된 의복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기하학적 패턴 형태와 직선의 솔기선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솔기선이 없는 2차원의 평면으로 구성된다. 착용시에는 전통적인 평면의처럼 인체와 의복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화되는 새로운 기하학적 의복을 완성하게 된다.

현대 평면의의 유형은 우븐웨어와 니트웨어 모두에 표현되며, 모두 직선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인체 착장 후에는 전혀 다른 실루엣을 표현한다. 우븐 평면의는 기하학적이며 제한된 구조의 실루엣을 형성하지만 니트 평면의는 인체와 일체화된 유동적인 실루엣을 형성하게 된다.

우븐웨어와 니트웨어에 나타난 평면의의 형태미는 유기론적 공간변화, 전통의 재현, 무형식의 형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유기론적 공간변화는 의복의 위상기하학적 측면으로 차원의 진행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통일성과 총체성이 표현되며, 상하·좌우·내외의 구별이 없는 비시원성, 무한한 공간의 변화에 따른 탈연계성이 내재되어 있다.

동양 전통의 재현은 현대의 복식에서 과거의 역사를 계승하여 응용·절충·복합시킴으로써 전통을 새롭게 창출하는 정신이 표출된다. 현대 평면의는 과거 문화와 현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동시대성이 나타나며, 과거를 표현하는 재현성과 통합성도 표현된다.

무형식의 형식은 의미의 불확정성으로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복과 인체가 열린 공간을 지향함으로써 무한히 개방된 공간 구성의 유연성을 지향한다. 현대 평면의에서 장식성을 배제하고 단순성을 강조한 의복은 유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인체와 일체화되는 니트 평면의는 인체의 순수성과 관능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현대 평면의의 활용 범위가 의복 전반에 활용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구성법을 의복 표현 방법에 적용함으로써 미학적 영역이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복의 새로운 개발을 위한 구성법의 체계화에 활용될 수 있으며 디자인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후행 연구로 현대 평면의를 우븐웨어와 니트웨어로 세분한 분석과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의복의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1) 이정임 (1991). 평면재단과 입체재단 비교를 통한 체형별 원형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p. 309.
- 2) 이은영 (1991). *패션마케팅*. 교문사, pp. 30-65.
- 3) Lillian B. Matthews (1979).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ism of Dress and Social Values of Ghanaian Women. *H.E.R.J.*, 7(6), p. 391.
- 4) 박태기, 김은정 (2002). 중국, 일본, 한국의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나타난 토탈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 52(5), p. 111.

- 5) 김동욱 (1997). *현대사회와 모더니즘. 나뉘출판사*.
- 6) 최혜정, 임영자 (2001). 20세기말 현재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2), pp. 149-167.
- 7) 김희정, 이경희 (2000). 동양적 복식디자인의 특성과 이미지 연구(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4(3), p. 28.
- 8) 김이은, 조규화,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5), pp. 801-816.
- 9) 김인경 (1998).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38(5), p. 234.
- 10) 공미선, 채금석 (2004). 세계시장을 위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개발. *복식*, 54(2), p. 3.
- 11) 김희정 (2002). 현대 패션의 일본적 디자인 특성과 이미지 구성요인.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1), p. 12.
- 12) 김윤희, 김민자 (1991). 20세기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p. 4.
- 13) 조영아, 유혜영 (2001). 20세기 동양모드의 변화 연구. *복식*, 51(5), p. 27.
- 14) 권진 (2005). *현대 니트웨어의 니트기법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논문, p. 53.
- 15) 권진 (2006).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Whole-garment in Terms of the Topology.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2(1), p. 74.
- 16) 김민지, 인체미 (1997). 인식과 복식형태의 변천. *복식*, 32, p. 227.
- 17) 김윤희, 김민자 (1991). 20세기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p. 5.
- 18) Mary E. Roach & Joanne B. Eicher (1973). *The Visible Self: Perspectives on Dres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p. 101.
- 19) 임영자, 문공화 (2002). 한복구조에 나타난 '옷감(ground)'과 옷꼴(figure)에 관한 연구. *복식*, 52(3), p. 150.
- 20) 권진, 위의 책, p. 73.
- 21) 수공예니트는 기계 니트의 출현 이전의 기법들로 정교한 수작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핑거테크닉, 매크라메, 스포랭, 크로세, 널바인딩, 핸드니트 등이 포함된다.
- 22) 임영자 (1996).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p. 264.
- 23) 고복남 (1987). *한국 의복의 유형과 양식*. 집문당. p. 31.
- 24) 권진, 위의 책, p. 79.
- 25) 임영자 (1996).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p. 264.
- 26) 박미자, 임영자 (1996). 한복에 나타난 위상기하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복식*, 30, p. 72.
- 27) 권진, 위의 책, p. 79.
- 28) 김윤주 (1998). 1990년대의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p. 38.
- 29) 최해주, 안은경 (200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53(2), p. 146.
- 30) 최해주, 안은경. 위의 책, p. 147.
- 31) 손영미, 이수현 (2004). 플리즈기법을 응용한 패션디

자인 연구. 복식, 54(6), p. 161.

- 32) 함연자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 복식, 53(6), p. 111.
- 33) 김진아 (1998). 해체주의 조형성에 따른 복식디자인의 연구. 경일대학교 석사논문, p. 12.